



## 지역별 창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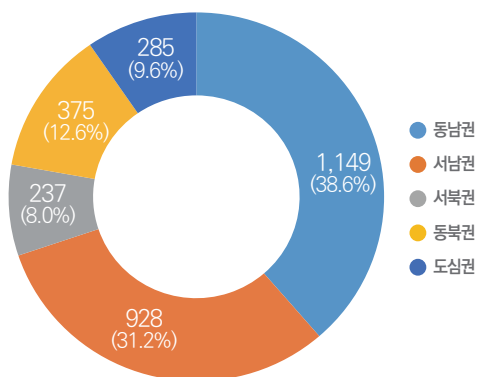
### 1) 5대 권역별

#### I 5대 권역별 창업현황

- 전국 대비 서울의 법인창업 비중은 28.3%로 17개 시도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했지만, 2위 경기(27.8%)와는 0.5%p로 근소한 차이
- 서울의 법인창업은 (전년 동월 대비) 1.9%p 감소한 반면 경기 법인창업은 2.8%p 증가 하면서, 서울과 경기 간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음
- 서울의 권역별 법인창업은 동남권이 1,149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이 928개, 동북권 375개, 도심권 285개, 서북권 237개 순으로 활성화

[그림 2] 2019년 12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단위: 창업 법인 수(비중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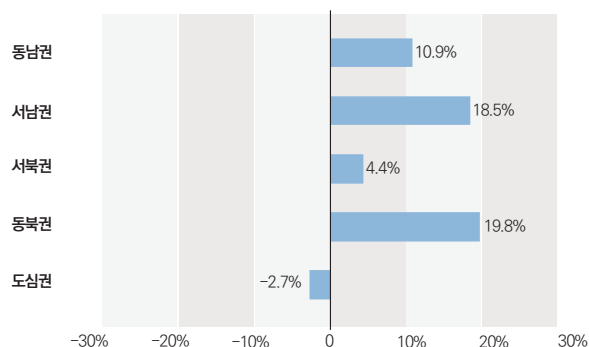


#### I 권역별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- 서울의 권역별 법인창업 증감률은 동북권(19.8%), 서남권(18.5%), 동남권(10.9%), 서북권(4.4%) 순으로 증가한 반면 도심권(-2.7%)은 감소
- 동북권은 지난 3개월 연속 (-) 성장에서 벗어나 12월 (전년 동기 대비) 법인창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, 서남권은 2월부터 연중 내내 (+) 성장을 나타내며 연평균 9.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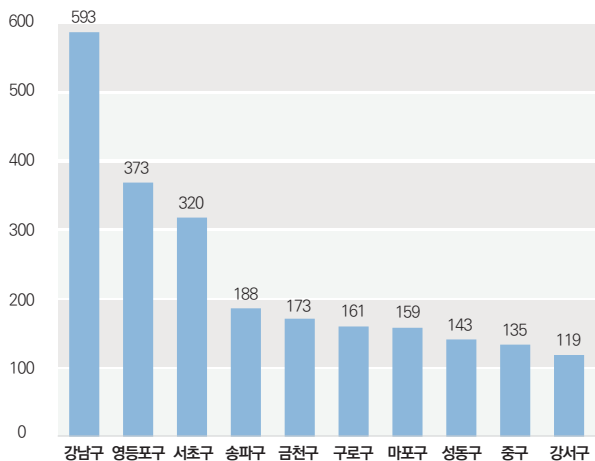
- 서울에서 법인창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동남권은 (전년 동월 대비) 10.9% 증가
- 동남권은 법인창업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서비스, 도소매, 그외기타 산업을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점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콘텐츠 등의 산업이 선전하면서 지역 성장을 견인. 반면 관광·MICE, 도심제조, IT융합, 금융 등의 산업은 감소
- 12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동북권은 19.8% 증가
- 동북권은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과 IT융합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(전년 동월 대비) 법인창업이 고르게 증가
- 서남권은 2019년 내내 법인창업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12월 (전년동월 대비) 18.5% 증가
- 서남권은 2월~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+11.3% 성장
- 12월 서남권은 창업 비중이 높은 금융, IT융합 산업을 필두로 도심제조, 숙박 및 음식점, 도소매, 그외기타, 비즈니스서비스 콘텐츠 등의 산업에서 활발한 창업이 일어나면서 높은 성장률 유지. 반면 관광·MICE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은 감소
- 서북권은 금융, 관광·MICE, 숙박 및 음식점, 비즈니스서비스 등 일부 산업이 선전하면서 (전년 동월 대비) 4.4% 소폭 증가
- 서북권의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IT융합, 콘텐츠, 도심제조, 도소매, 그외기타 산업 등은 감소
- 도심권은 권역 중 유일하게 (전년 동월 대비) 2.7% 감소
- 도심권은 도심제조, 그외기타, 비즈니스서비스 등 일부 산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이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 감소세

[표 2] 2019년 12월 권역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

- 12월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강남구가 593개(19.9%)로 가장 많고, 그 외 영등포구 373개(12.5%), 서초구 320개(10.8%), 송파구 188개(6.3%), 금천구 173개(5.8%), 구로구 161개(5.4%), 마포구 159개(5.3%), 성동구 143개(4.8%), 중구 135개(4.5%), 강서구 119개(4.0%) 순으로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지역으로 나타남
- 강남구는 금융(2위)과 도심제조(4위)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위 1위의 법인창업 수를 나타내면서 자치구별 법인창업 순위 1위 차지
- 자치구별 법인창업 2위 영등포구는 관광·MICE, 도심제조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활발한 법인창업이 일어나며 법인창업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 증감률도 2위 기록
- 서초구도 관광·MICE, 도심제조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활발한 법인창업이 일어나며 자치구별 법인창업 3위 유지

[표 3] 2019년 12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

## I 자치구별 증감률

-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(성동구37.5), 영등포구(29.1%), 구로구(27.8%), 강서구(19.0%), 송파구(14.6%), 강남구(11.3%), 금천구(8.8%), 서초구(7.0%) 순
- 반면, 중구(-3.6%), 마포구(-0.6%) 지역은 감소
-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영등포구(84개), 강남구(60개), 성동

구(39개), 구로구(35개), 송파구(24개), 서초구(21개), 강서구(19개), 용산구(16개), 금천구(14개), 강동구(8개) 순

[표 4] 2019년 12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